

프랑스-모로코, 15일 카타르월드컵 4강서 격돌

역대 월드컵 식민지더비 결과는?

프랑스와 모로코가 2022 카타르월드컵 4강에서 격돌한다. 모로코는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번 경기 외에도 월드컵에서는 식민지배를 한 나라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맞붙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이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공교롭게도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들을 연속으로 만나게 됐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했는데 모두 이번 월드컵에서 맞붙는다. 모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점령을 당했고 프랑스로부터도 지배를 받았다. 스페인과 프랑스로부터 분할 통치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던 모로코가 지난 7일 대회 16강에서 스페인과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이제 오는 15일 프랑스와 4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모로코는 직전 대회인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스페인과 2-2로 비기는 등 물러서지 않은 이력이 있다.

그때도 축구 강국 스페인은 대체로 남아 옛 식민 피지배국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우세했다. 파라과이에는 2승 무, 칠레에는 2승 패, 온두라스에는 1승1무, 코스타리카에 1승, 볼리비아에 1승 멕시코에 1승 우루과이에 2무, 모로코에 2무를 거뒀다. 유일한 열세는 1패만 기록한 아르헨티나다.

프랑스의 식민지 더비 결과는 어땠을까. 프랑스는 옛 피지배국에 다소 약했다. 프랑스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세네갈에 0-1로 충격패를 당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튀니지에 0-1로 졌다.



모로코 선수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포르투갈을 물리친 후 운동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모로코는 유세프 엔네시리의 전반 42분 선제 결승 골을 앞세워 포르투갈을 1-0으로 꺾고 아프리카 사상 첫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모로코, 16강서 식민지배국인 스페인 격파
공동 식민지배국 프랑스 4강서 만나
스페인·포르투갈, 옛 피지배국에 강해
프랑스·잉글랜드, 총격패 등 경험 있어

그때도 프랑스는 1986 멕시코월드컵에서는 캐나다를 1-0으로 이겼고 2006 독일월드컵에서도 토고에 2-0으로 이겼다.

식민지가 가장 많았던 잉글랜드도 옛 피지배국을 상대할 때 축구 강국의 면모를 보이지는 못했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 미국과 0-0 비

긴 것을 비롯해 미국을 상대로 2무1패로 열세다.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와 1무, 나이지리아와 1무에 그쳤다. 다만 이집트와 쿠웨이트를 만나서는 1번씩 만나 모두 승리했다.

반면 포르투갈은 옛 피지배국을 상대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1986 잉글랜드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을 3-1로 이겼고 2010 남아공월드컵 때도 조별리그에서 0-0으로 비겼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앙골라를 상대로도 2006 독일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0으로 승리했다. /뉴시스

월드컵 4강부터 '황금색 공'

FIFA '알 힐람' 공개

2022 카타르월드컵 4강전부터 사용될 공인구 알 힐람이 공개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1일(현지시간) 이번 대회 4강전부터 아랍어로 '꿈'을 의미하는 알 힐람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알 힐람에도 기존 공인구인 알 힐라와 같은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이 내장돼 있다.

다만 소재와 디자인은 다르다. 흰색 위주였던 알 힐라와 달리 월드컵 트로피와 같은 황금색과 카타르 국기에서 영감을 얻은 삼각형 패턴이 특징이다.

또 수성 잉크와 접착제로만 제작돼 친환경적이다. 이 공을 제조한 아디다스의 닉 크레



이그스 총괄 담당은 "알 힐람은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축구와 스포츠의 힘을 보여주는 불빛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회 4강전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4시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시작으로 15일 오전 4시 프랑스와 모로코의 대결로 이어진다.

대회 3~4위전은 18일 0시, 결승전은 19일 0시에 치러진다. /뉴시스

박나경, 전북은행 배드민턴팀행

지난 8월 전국학교 대학 선수권서 단식 1위 차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배드민턴 여자실업팀 전력 강화를 위해 여자 단식의 박나경(충주여고 졸업예정) 선수를 영입하고 12일 본점에서 입단식을 했다.

박나경은 지난 8월 전국학교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식 1위를 차지하며 커리어 첫 개인전 단식 우승으로 실력을 입증했다.

이어 한국 주니어 대표로 지난 10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해 혼합단체 우승에 힘을 보탤다.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은 한국 배드민턴 여자부식의 간판 공희용 선수와 함께 이번에 박나경까지 영입함에 따라 내년엔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디자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지속해서



12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박나경 선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배드민턴팀 입단식.

이어갈 예정이다. 박나경 부행장은 "이번에 새롭게 전북은행 배드민턴팀에 영입한 박나경 선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신예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 실업 배드민턴계의 명문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선수들도 걱정… 대표팀 감독 너무 쉽게 선택 말라”

이재성, 차기 축구 국대 감독 선임 관련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30·마인츠)이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선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성은 12일 블로그에서 “감독님이 떠나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별써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적인 분위기도 있다. 선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들리는 소식만 전해 듣는데 걱정이 된

다.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면 좋겠다.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감독님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번이라도 더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 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했다. 벤

투 감독님이 그걸 증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재성은 파울루 벤투 감독에 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뚜렷한 철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흔히 고집이 세다고들 하는데, 나도 그런 모습을 느꼈다. 그만큼 자기 철학에 믿음이 강하셨다”며 “그런 감독님을 보며 선수들도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쌓였다.

감독님을 위해 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감독님을 위해 한 발 더 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전 황희찬 투입과 관련, “희찬이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투입하셨고 희찬이의 골로 우리가 16강에 갔다”며 “그 경기 이후 선수들끼리 얘기했다. ‘우리 감독님 진짜 명장이다’라고 감독님에겐 계획이 다 있었다. 한 수 앞을 바라보시는 분이였다”고 평했다. /뉴시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허위 학력 기재 조사 철저히”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후보, 도선관위에 김동진 후보 고발

“최종학력 허위 기재는 유권자 알 권리 무시한 행위이다”

전북체육회장 선거 기호 1번 정강선 후보가 상대 후보인 기호 2번 김동진 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고발했다.

정강선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짙아, 자신의 최종 학력을 실수로 기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고 주장했다.

또 “반약 정 후보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최종학력 수정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유권자들은 그대로 학력을 인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전북체육 발전을 위한 공정한 투명한 선거를 치르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도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경수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